



# 평생고등교육의 새 교육 패러다임 : 사이버대학

-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김 준 형 |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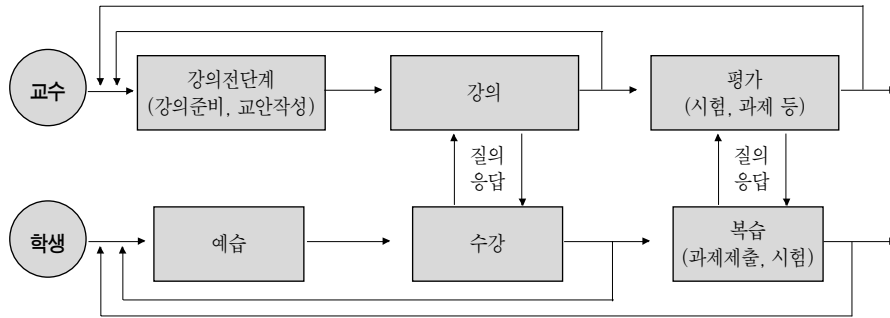
## I.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 사회는 정보화사회(또는 지식정보사회)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급격한 속도로 정보통신기술이 일상생활에 널리 보급·활용되고 있다. 금융거래와 상거래의 상당 부분이 이미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전자정부구축으로 안방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해 있다. 특히, 지난 대선이나 총선에서 인터넷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였든가, 얼마 전에 발생한 웹 바이러스 공격으로 인해 국내 인터넷 통신망이 단절되어 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의 중단으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정보통신기술이 정치·경제·문화·사회·교육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얼마나 많이 퍼져 있고 또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반증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통신 분야를 넘어 모든 학문 분야와 영역에 영향을 미

치고, 이는 다시 상승 작용을 일으켜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빠른 속도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재생산·유통·가공·저장하고 있다. 이러한 빠른 속도의 지식과 정보의 증가는 17세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야기된 산업 혁명에 비견되며, 이를 디지털 혁명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빠른 속도의 지식과 정보의 증가는 교육, 특히 대학 교육의 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급변시키고 있다. 첫째, 전세계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적인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모든 대학은 그 소속 사회로부터 개혁을 요구받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개혁의 요구는 강하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전의 대학졸업자들은 대학 교육의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직장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만으로도 평생 동안 직업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



(그림 1) 면대면 교육방식의 강의 진행 diagram

해서는 꾸준한 재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깨졌으며, 직장인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로 무장할 필요가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대학이, 특히 우리나라 대학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적절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우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막대한 자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둘째로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자체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전업 학생들을 위한 교육체제로 운영되고 있지 주경야독해야 할 직장인들을 위한 운영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즉 사이버 교육(온라인 교육이라고도 함)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평생교육제공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사이버 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대학교육 형태, 즉 사이버대학이 출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사이버대학이 처음 설립된 이래,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은 2004년 현재 17개 사이버대학(4년제

15개교, 2년제 2개교)이 설립되어 있고, 입학정원이 2만5천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면에서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면대면 교육 방식의 시공간적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운영사례를 비추어 사이버대학의 본연의 설립목적인 교육의 질적 향상과 평생교육 제공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Ⅱ. 기존 대학교육 방식의 문제점 분석

### 1. 면대면 교육의 한계 : 시공간적 제약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교육방식은 면대면 교육방식으로 교육자(교수, 교사, 학부모 등)와 학습자가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교육과 학습)으로 만남을 전제로 한다. [그림 1]은 가장 대표적인 면대면 교육방식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그림 1]과 같은 면대면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높다는 것이다. 교수는 학생의 수강 태도나 질문을 통해 학생의 이해도를 판단하여 강의 내용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학생 입장에 가장 손쉬운 방법, 즉 질문을 통해 학습 내용을 심화할 수 있다. 또한 교수와 학생간의 높은 상호작용은 사제간의 인간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경우에 가장 선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면대면 교육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의당 학생수가 매우 작아야 하지만, 우리 대학의 경우 강의당 학생수가 많아 면대면 교육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면대면 교육방식은 위 장점에도 불구하고 내재적인 물리적 한계, 즉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무엇보다도, 교수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인해 극히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전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의 교육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수에게 교육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대학경영자 입장에서는 강의실, 기숙사 등 보다 많은 학교시설을 구비하여야 하고, 보다 많은 교수의 확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육 원가는 증가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건전한 재정운동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우리 대학의 경우처럼 재정이 부실한 경우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학생 입장에서는 보다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서 좋은 교수가 있는 장소(대학)에 가야 하기 때문에 등록금 등 직접교육비 이외에 상당한 기회비용(교통비, 등·하교 시간, 유학생활동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직장인, 가정주부, 군인의 경우처럼 교수가 대학에 근무하는 시간 중에 대학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예 학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면대면 교육의 물리적 한계는 단순히 교육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경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수도권 집중현상, 강남 부동산투기, 사교육비 문제, 조기 해외유학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 제공은 바로 면대면 교육의 물리적 한계가 그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2. 교수중심교육 .vs. 학생중심교육

원론적으로 말하면, 교육은 학생들의 능력 개발이 주목적이므로 교육과 관련된 제문제들이 학생 입장에서 또는 학생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대학교육은 도제제도에서부터 출발하였고, 앞서 설명한 면대면 교육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학생 중심의 학습(learning) 보다는 교수 중심의 교육(teaching)이 강조되어 왔다. 교수(또는 학교)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강의실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의를 수강할 수 없었고, 한번 놓친 강의는 또 다시 수강할 기회가 없었다. 또한 강의 개설 여부나 강의 내용 및 강의 진도의 결정권은 전적으로 교수에게 주어져 있었다. 학생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선택권은 개설되어 있는 여러 과목 중에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만이 부여 되어 있

고, 그나마 필수과목이라는 이름으로 상당 부분의 선택권이 제약 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대학교육은 교육에 대한 제문제의 결정권은 교수에게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교수중심' 이었고, 그 특성상 당분간 학생들이 교육의 제문제를 결정하는 '학생중심' 이 될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학생중심교육' 을 강조하는 것은 최소한 학생이 자신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면, 교육의 원본적인 목표에 보다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Ⅲ. 새로운 대안 : 사이버교육, 사이버대학

면대면 교육 방식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오래 전부터 시도되어 왔으며, 일부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자리를 잡고 있는 방송통신대학이나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방송교육은 면대면 교육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교육은 기술상의 한계로 일방향 교육 위주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 작용을 위한 쌍방향 교육이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방송채널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강좌를 동시에 전송하는데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는 면대면 교육 방식의 한계를 크게 극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 1. 사이버교육

정보통신기술의 교육에의 활용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 특히, 1980년대 미

국을 중심으로 CAI/CAE(Compter Aided Instruction/Education)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교수-학습 활동의 보조 수단으로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이 출현하면서부터 단순한 교수-학습 활동의 보조 수단을 넘어, 교수-학습의 장이 전통적인 강의실로부터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된 사이버교육이 출현하게 되었고, 기존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대안으로 확실한 자리잡게 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거리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거리와는 달리 네트워크 연결도로 표현된다. 즉, 두 지역의 물리적 거리와 위치에는 상관없이 두 지역이 서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사이버 공간 상에서 두 지역은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두 지역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면 물리적으로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두 지역의 거리는 무한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은 기존의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 방식의 한계이었던 공간적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즉,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 방식의 물리적 공간에서는 강의를 수강하기 위하여 강의실을 직접 찾아가야 하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순간 강의실에 입실한 것과 동등한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을 교수-학습의 장으로 사용하는 사이버 교육은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학생이 교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수가 학생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의 50%가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이며, 이중 20%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며, 또 20여 명은 미국, 중국, 일본, 몽고 등 외국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있다.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였던 교육이 사이버 교육을 통해 가능해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면대면 교육 방식은 물리적 공간의 한계로 인해, 교육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일한 시간에 여러 학생들을 모아 놓고 한꺼번에 교육을 하는 집체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교육은 집체 교육(네트워크상의 동시 접속)이나 또는 개별 교육(네트워크 상의 비동기적 접속)이라는 선택의 문제이며, 교육 내용과 교육 목적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지, 면대면 교육에서처럼 반드시 동일시간에 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은 아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대학 교육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의 학습이 동시에 발생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학생이 강의 시간에 직접 교수와 질의응답을 할 수 없다는 불편한 점만 감수할 수 있다면 교수의 강의와 학생의 수강을 비동기화시킴으로써 교육적으로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교수가 정해진 시간과 일정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는 교수중심형 교육에서 학생의 선택한 편리한 시간에 자신에게 맞는 학업 진도에 따라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보다 학생중심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교육적 목적에 더욱 충실할 수 있고, 둘째, 교수가 정해진 시간대에 학교에 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직장인, 가정주부 등)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지식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대처할 수 있고, 셋째, 강의실 규모에 따른 수강학생수 제

한을 없앨 수 있어, 교육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큰 장점이 있다.

## 2. 사이버대학

사이버대학은 이와 같은 사이버교육의 장점에 기초하여 열린교육과 평생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미래형 대학이다. 불과 지난 3년간의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운영 경험을 분석해 보더라도, 면대면 교육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또 새로운 대학교육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최근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인구 통계상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감내하거나 새로운 교육 시장(외국 유학생 유치, 평생교육 확대 등)을 개발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경우, 재학생의 80% 이상이 직장인이며, 전업 학생은 5%에 불과하여 사이버대학의 설립 목적인 평생교육에 부합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개교한지 얼마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여명의 외국 유학생이 있다는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며, 향후 우리나라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이버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면대면 교육방식보다 높은 교강사료, 콘텐츠 제작 및 정보시스템운영을 위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강좌당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시설 건축비와 캠퍼스 유지비가 저

“

사이버대학은 이와 같은 사이버교육의 장점에 기초하여  
 열린교육과 평생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미래형 대학이다.  
 면대면 교육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대학교육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럼하고, 강좌당 수강생수를 많이 할 수 있으므로 학교 경영측면에서 매우 효율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어, 대학교육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사회적인 비판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셋째, 학생중심교육체제 운영으로 학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우선 기존 대학의 경우, 축제나 행사, 휴일, 학내 시위 등으로 인해 결강이 많으나, 사이버 대학의 경우 학생 스스로 편리한 시간에 수강할 수 있어 편리하면서도 결강이 없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 매우 충실하다는 예기치 못한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가능성은 향후에는 더욱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IV. 대학교육의 검증 : 교육중심 대학

대학, 특히 학위과정의 제1의 목표는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는 데에 있다. 즉, ‘교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우선, 대학교육의 수요자들인 학생과 기업의 평가는 결코 높지 않다. 물론, 교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학업에 열중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우리 대학의 현실에서 대학교육의 질적인 책임을 교수들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교수들의 책임이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0여 개 4년제 대학 중에 공식적으로 교육중심대학을 선언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일 필요가 없으며, 또 그래서 안 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진로 희망이 취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강조된 만큼 ‘교육’은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게 교수업적평가 등의 제도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특히, 대학 평가요소 중 교수의 연구업적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심화되어, 연구중심대학은 일류대학이고 연구 업적이 높은 교수만이 일류교수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교수들도 ‘교권 침해’라는 주장으로서 자신의 강의나 교육 업적에 대한 평가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많은 대학에서 강의평가제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학생들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강의 평가 결과가 교수의 임용 또는 승진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면에서, 사이버 대학, 특히 경희사이버

대학교는 그 설립 취지에 따라 교수업적평가에서 연구업적 뿐만 아니라 교육업적을 강조한다. 따라서 연구업적이 훌륭한 교수들을 평가하는 그 이상으로 명강의를 하시는 교수나 학생지도를 위해 헌신하신 교수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교수업적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사이버교육은 그 특성상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면대면 교육과는 달리 교수의 교육 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가 DB로 구축이 된다는 것이다. 교수들이 교안 작성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강의에 어느 정도 열정적이었는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고, 질의응답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였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DB화 된다. 따라서 강의 내용이 불충분하였거나 불성실하였을 때 학생들의 평가는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림 1]에서 같이 강의 전단계에서 강의를 철저히 준비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강의 내용이 충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부적 평가는 지난 2년간의 강의평가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학생들의 사이버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동시에 강의를 담당하였던 경희대학교 교수들의 평가이기도 하다. 설립 4년째인 현 단계에서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강의에 관련된 문제점은 교육의 질적인 문제 보다는 교수님들의 강의 준비가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비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정도로 우리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이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대학은 축제, 휴일, 학내 시위

등으로 인해 결강이 많아 학업량이 외국 대학에 비해 적으며, 이는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이버 대학에서는 이러한 결강에 대해 매우 자유롭다.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경우, 각 교과목의 교육 목표에 매우 충실할 수 있으며, 심화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선수 과목들이 매우 충실하게 운영되므로 전체적으로 교육의 수준과 질의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교육과 사이버대학은 당초 평생교육을 위한 대응 교육 체제로 출발하였으나, 부수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단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사이버교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그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교육의 질적 향상에 미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금년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경희사이버대학과 경희대간 학점 교류의 결과를 분석한다면, 사이버교육과 면대면 교육 간의 교육의 질적인 평가가 보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본다.

## V. 새로운 대학 만들기 : 경희 사이버대학교

한 나라의 교육체제에는 단순히 '교육'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경제·문화·사회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 우리 대학에도 지난 1950년대 국민 소득 100달러 이하의 극빈국가이었던 당시의 모습과 제도가 숨겨져 있는 동시에, 1960~70년대의 산업화 과

정의 모습도 내재되어 있고, 1980~90년대의 민주화 과정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이렇듯 대학의 내부는 과거에 바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과거에 대학이 쌓아온 업적보다는 대학이 보다 미래지향적이길 요구한다. 따라서 대학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정도의 차이일 뿐 늘상 있어왔다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과거와 단절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대학 개혁과 미래형 대학을 만드는 데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신설 대학인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대학으로서의 역사와 전통이 일천하다는 단점과 함께 과거로부터 자유롭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희사이버대학교의 핵심과제는 평생교육이 주축이 되는 21세기 미래형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1. 재학생의 분석과 교육의 목표 설정

경희사이버대학교 재학생(2003학년도 기준)의 80% 이상이 직장인이며, 나이 구성도 20대 후반부터 30대가 주축으로 약 66%이며, 40대 이상이 15%이고 기존 대학의 학생 연령층인 25세 이하는 20%에 불과하다. 이는 기존 대학의 학생 구성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즉, 기존 대학의 재학생들은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 단계에 있으며 취업을 모색하고 준비하고 한다면, 경희사이버대학교의 학생들은 이미 대부분이 직장인으로 짧게는 5년 많게는 20~30년의 직장 경험을 갖고 있으며, 본인의 직업능력 강화와 전문화 또는 확장을 위해 대학 교육을 받는다. 몇 가지 예를 들

면, 호텔경영학과에 입학한 현직 한의사의 경우, 본인의 목표인 호텔 같은 병원을 경영하기 위해 호텔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현직 모 대기업의 CEO는 관광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관광레저경영학과에 입학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은 뚜렷한 교육 목표가 있으며, 교육과정이 자신의 직업에 직접 활용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기존 대학의 교육과정에 비해 실무 내용이 대폭 강화되어 있다.

### 2. 교육과정과 학사 제도의 개선 - 학생 선택의 폭 확대

사이버대학교의 학생들은 나이, 직업,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학사제도로는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은 단일 전공 분야를 심화 교육받고자 하며, 다른 학생은 여러 전공 분야를 폭 넓게 공부하고 싶어 한다. 또 다른 학생들은 직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유연하면서도 탄력적인 교육과정과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모든 학과는 해당 전공 분야의 진로와 과목간의 관계 및 선수 교과목을 표시한 교육과정지도(Curriculum Map)를 작성하고 있다(홈페이지 참조 <http://www.khcu.ac.kr>). 학생들은 이 Curriculum Map을 보고 특정 분야를 심화하기 위해 수강해야 할 과목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 조기졸업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전공필수제도를 폐지하였다. 특히, 전공필수과목을 폐지한 것은 일부 교수들의 반대와 논란이 있었으나, 제도적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기보다는 강의의 질로서 학생들을 유도해야 한다는 신생 대학다운 참신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과 학사제도를 운영한 결과, 학생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교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에 대한 학생만족도가 높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복수전공, 부전공을 선택하고 있고, 이미 3년 조기 졸업생 9명을 배출하여 이중 7명이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신생대학으로서 상당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 Ⅵ. 향후 과제

사이버 교육이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능력에 비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사이버교육의 경험 축적과 함께 사이버 교육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강의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토론학습, 현장학습 등으로 교육방법을 다양화하고 교수에 대한 사이버교육 교수법 교육(Faculty Development and Training)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 교육과 사이버대학의 효율성과 가치에 대한 평가가 좀더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 전반적인 인식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져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타 다른 환경들이 함께 변화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걸 맞는 법과 제도에 대한 고민도 이어져야 한다. 교육의 패러다임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교육개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끊이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가운데 사이버대학도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 

### 김준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공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DACOM 행정전산사업단 TX안정화 팀장,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대우교수,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화지원담당관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장으로 재직중이다.